

#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0 0 0
-----	--	-----	--	-----	-------

## 교육자로서

### 가르침과 배움 (Homines, dum docent, discunt : 가르치는 자가 배운다)

1986년, 0000000(000000로 변경)을 전공하고 이후 대학원 진학하였고, 1994년부터는 000000에서 0000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던 아버지의 삶을 닮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고 또한 이러한 제 공부 욕심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던 가정환경 안에서 태어난 덕에 저는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일반 여성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을 누리며 성장했고, 제가 바라던 교육자의 길에도 어렵지 않게 들어섰습니다.

제가 저의 삶의 범위를 넘어 타인을 바라보게 된 계기는 대학에서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가진 환경과는 달리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하고 싶던 공부를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당시 제 또래의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여성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고민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육과 연구 활동을 넘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학 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보직 활동을 했습니다. 000000 전산소장으로 대학에 윈도우 환경 보급 및 Ethernet 기반 인터넷 환경을 2000년도에 구축하여 대학의 정보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000000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학생지도와 연구활동을 넘어 대학의 사업지원팀장으로서 재정지원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사업에서는 새로운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커피바리스타 과정을 개설하였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교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커피 바리스타에 관심 있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수 참여하였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 정도를 보낸 000000의 삶은 저를 교수에서 교육자로 확장하는 시간이었으며, 그간의 학생들은 제 삶을 의미 있게 꾸려가는 원동력입니다. 되돌아보면 대학 공동체 안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배웠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였습니다. 결국,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였던 것입니다. **Homines, dum docent, discunt!**

## 나의 장점

### 안티프래질 (Antifragile : 어려울수록 빛나는)

2005년 총장의 교비 횡령 등의 회계부정으로 000000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합니다. 비리와 맞서는 것이 교육자로서 도리라 생각하여 사학비리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

교육현장에서는 뜻을 같이했던 교수와 직원들은 해고를 당했고 모두 긴 법정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2011년 2월 대학을 떠나 약 9년의 세월이 흐른 2018년 12월에 복직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충격이 가해질수록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을 '안티프래질(Antifragile)' 이라고 정의합니다.<sup>1)</sup>

안티프래질은 회복력이나 강건함 이상을 의미합니다. 회복력 있는 것은 충격에 저항하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반면, 안티프래질의 특성을 가진 것은 충격을 가하면 더욱 좋아집니다. 이런 특징은 정치, 경제, 기술혁신, 그리고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좋게 변하는 모든 것들의 배경입니다.

해직으로 인해 저는 안티프래질 해졌습니다. 저 자신이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부정, 부패와 맞싸워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디고 느리고 아니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워나갔고, 연대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알게 되었으며,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의 바른 철학과 행동이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안에서만 있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0000000000이란 콜센터 회사를 설립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000항공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들을 대변하는 '동물권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연대하면서 2014년부터는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바꾸는 것에 노력하였고, 2018년도에는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값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4년에는 여성기업인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 표창장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전주동물원은 변화가 가장 큰 동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행정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향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뤄나갔습니다.

완산여고의 문제와 구조는 제가 경험했던 000000의 모습과 구조와 닮았습니다. 사학비리의 본질을 아는 저는 완산여고를 건강한 교육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이해와는 차원으로 체득된 것이기에 저는 완산여고 구성원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한 시간이 길고 험해도 저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합니다. 완산여고를 안티프래질하게 할 완벽한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 교장으로서는

### 미래 교육, 에케 호모 (Ecce Homo, 사람을 보라)

교육자로서 보내온 26년의 시간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의 사람을 바라봐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특히 청소년기의 학교는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철학을 가질 수도 학교 내의 구성원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도 없으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은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한 교육철학,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방법, 평가기법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 지금, 너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전례 없는 대변혁의 시대에 직면해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잡성도 커지고, 모호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하는 학교는 더욱 심란합니다. 불행히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이 되면 별 소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비한 학교 교육 내용은 ‘4C’, 즉 비판적사고 (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력 (Collaboration), 창의성 (Creativity)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sup>2)</sup>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제 학교경영계획서는 4C를 바탕으로 완산여고의 교육과정 운영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4차산업혁명의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살아갈 삶의 기본적인 플랫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000 전공 배경과 특성화 고등학교를 매우 잘 이해하는 전문대학 교수로서 26년의 교육 경험, 그리고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랜 경험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역량들을 가지고 완산여고 교장으로서는 해내야 하는 지속가능한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플사를 설립한 스티브 잡스의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 때 했던 말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간절하게 갈망하고, 우직하게 해내겠습니다.**

1)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안티프래질>

2) 클라우스 슈밥, <교육비전: 기술의 잠재력을 열다>(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버니 트릴링, 찰스 파델 <21세기 핵심역량>; 전미교육협회 간행물 ‘Preparing 21st Century Students for a Global Society’